



10월 2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10.8	10.1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372.73	1,334.89	↑ 2.83	↑ 24.36	919.08 '20/10/29	1,420.27 '21/07/02
인니	자카르타종합	6,481.77	6,228.85	↑ 4.06	↑ 8.41	5,091.82 '20/10/22	6,481.77 '21/10/08
인도	SENSEX	60,059.06	58,765.58	↑ 2.20	↑ 25.77	39,614.07 '20/10/30	60,135.78 '21/10/11
중국	상해종합	3,592.17	3,568.17	↑ 0.67	↑ 3.43	3,224.53 '20/10/30	3,715.37 '21/09/13
	심천종합	2,413.92	2,395.05	↑ 0.79	↑ 3.63	2,160.91 '21/03/09	2,503.85 '21/07/22
홍콩	H	8,775.65	8,726.38	↑ 0.56	↓ -18.28	8,412.72 '21/10/06	12,228.63 '21/02/17
	항셱	24,837.85	24,575.64	↑ 1.07	↓ -8.79	23,966.49 '21/10/06	31,084.94 '21/02/17
한국	KOSPI	2,956.30	3,019.18	↓ -2.08	↑ 2.88	2,267.15 '20/10/30	3,305.21 '21/07/06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10.8	10.1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19	2.17	↑ 2.00	↓ -38.90	2.07 '21/09/15	2.64 '20/11/02
인도네시아	6.24	6.24	↓ -0.30	↑ 34.90	5.89 '20/12/30	6.90 '20/10/12
인도	6.32	6.25	↑ 7.20	↑ 45.30	5.82 '20/12/04	6.35 '21/10/11
중국	2.90	2.88	↑ 2.70	↓ -24.20	2.82 '21/08/06	3.36 '20/11/19
한국	2.36	2.25	↑ 11.20	↑ 64.00	1.44 '20/10/19	2.40 '21/10/06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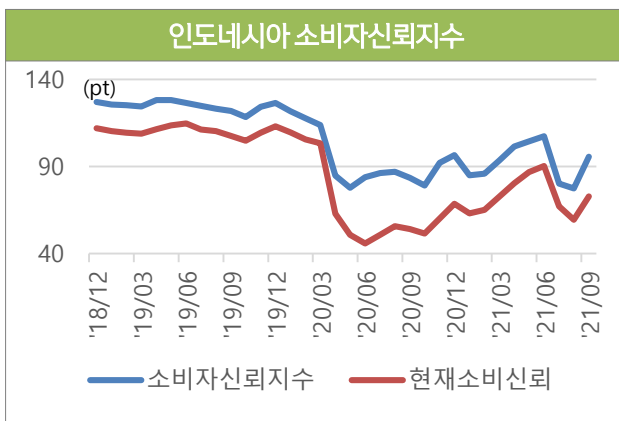
구분	10.8	10.1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763.00	22,755.00	↑ 0.04	↓ -1.45	22,749.00 '21/10/04	23,184.00 '20/11/03
달러-루피아 (IDR)	14,223.00	14,308.00	↓ -0.59	↑ 1.23	13,895.00 '21/01/04	14,725.00 '20/10/13
달러-루피 (INR)	74.99	74.13	↑ 1.17	↑ 2.63	72.33 '21/02/24	75.46 '21/04/21
달러-위안 (CNY)	6.44	6.44	↓ -0.02	↓ -1.28	6.37 '21/05/28	6.75 '20/10/13
달러-원 (KRW)	1,194.85	1,188.03	↑ 0.57	↑ 9.97	1,081.81 '20/12/04	1,194.85 '21/1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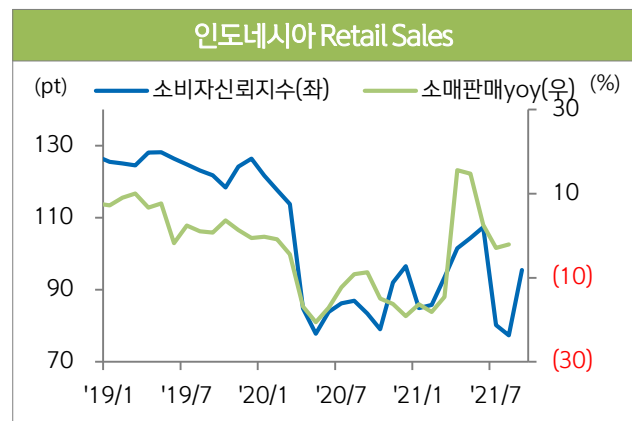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인도네시아, 경제활동 점차 정상화되며 소비 반등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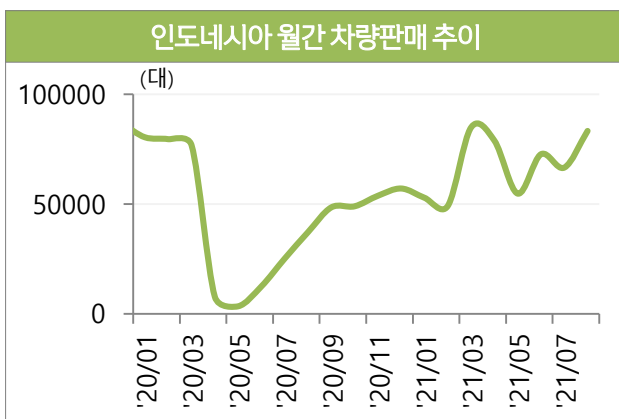
- ▶ 지난주 발표된 9월 인도네시아 소비자 신뢰지수는 8월의 77.3pt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95.5pt를 기록하였음. 아직까지 기준치인 100pt를 하회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통제되기 시작하면서 9월부터는 경제활동을 재개한 것이 월초 발표된 제조업 PMI 개선과 함께 소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 뒤늦게 발표된 8월 소매판매 증가는 전년 동기대비 -2.1%를 기록하여 8월까지 부정적이었던 소비심리가 실제 소비 위축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된 것을 반영할 경우 9월에는 다시 전년대비 +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8월 소매판매 증감 발표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월간 차량 판매대수도 지난해의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하는 흐름, 인도네시아 정부의 각종 차량 판매 관련 정책 지원 등을 감안할 때 연내 10만대 수준을 다시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 이러한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지난주 인도네시아 증시에서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유니레버 인도네시아의 주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초대비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던 흐름에서 벗어나 전주대비 20% 상승하였음.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인 소비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대로 자카르타 종합지수도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6,500pt 수준에 근접.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루피아화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재 및 금융 기업들이 경제 활동 재개에 힘입은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 쏠림 우려, 미국 부채한도 협상 등 대외 불안 요인 속에서도 신흥국 대안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 흐름이 인도네시아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종가기준 사상최고치 기록도 가능한 상황.**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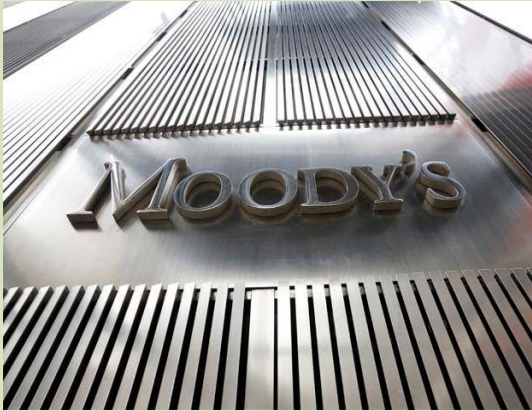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 뉴스





무디스, 인도네시아 주택 가격이 향후 2년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내년 이후 기저효과 및 우호적인 부동산 수요 정책에 힘입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주택 가격이 2022~2023년에 걸쳐서 강한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글로벌 금융 정보회사 Moody's Analytics가 전망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눌러있던 상승세가 반등할 것이라고 보았음. 무디스에서는 내년에는 5%, 내후년에는 6%의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보았음. 올해 1.5%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본 것에 비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임.
- 올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평균이 4.42% 상승률에 크게 뒤쳐지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2022년 3.45%, 2023년 3.65%의 평균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해서는 향후 2년간 높은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음.
- 올해 주택 가격 지수는 2015년 이래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과거에는 매분기 전년대비 최소 5%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중앙은행은 집계하고 있으며, 연간 기준 상승률로는 2014년에 6%가 넘는 주택가격지수 상승이 나타났었음.
- Moody's Analytics는 낮은 이자율과 세제혜택,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제한 완화 등의 부동산 투자 관련 우호적인 정책과 함께 보상 수요(Pent-up Demand)가 겹치면서 2022~2023년의 높은 수요가 나타나고 이것이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것을 보았음. 물론, 2021년의 낮은 주택가격 상승률의 기저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았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7~9월 사이에 주택 가격이 7월에 발생한 코로나 델타변이 확진자수 급증으로 인해서 부진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가 중국에게 178억 달러 수준의 '숨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



❖ 요약 및 시사점

민간 조사기관 AidData는 일대일로정책을 통해 중국이 각국의 국영기업 및 국영은행에 빌려준 금액을 실질적으로는 국가부채에 가까운 숨어있는 부채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부채를 지게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인도네시아의 중국대상 숨은 부채 규모도 178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음

- AidData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숨은 부채들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해당 연구에서는 이렇게 숨겨져있는 부채의 규모가 3,85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178억 달러는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음. '일대일로 정책 관련 은행부채(Banking on the Belt and Road)'라는 제목을 가진 이 보고서에서는 2000~2017년 사이에 여러 나라들에서 발생한 숨겨진 부채의 상황에 대해서 연구하였음.
- AidData는 Willam & Mary's Global Research Institute에 기반을 둔 국제 개발 연구 실험실임. 이번 보고서에서는 165개 국에 걸친 총 8,430억 달러 규모의 13,427개 프로젝트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프로젝트들에는 300개가 넘는 중국 정부 기관 및 국영기업들이 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72.8억 달러(247.1조 루피아) 규모의 숨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규모는 GDP의 1.6%에 달하는 것임. 인도네시아 이외에 베트남은 GDP대비 2.8%, 미얀마는 7.2%, 브루나이는 13.5%, 라오스는 35.4% 수준으로 나타났음.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 금액 외에도 공식적인 개발 지원 정책에 따른 대출 형식으로 44.2억 달러를, 그리고 이외의 공식적인 경로로 299.6억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하였음.
- 해당 보고서에서는 숨은 부채를 정부를 통해서 국가에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개발도상국가들에 지원한 것 이외의 대출로 정의하였음. 일대일로 정책이 시작된 이래로, 중국의 대외 대여금액 규모의 70%는 대여받는 국가의 국영기업, 국영은행, 특수목적기구(SPV), 조인트벤처, 민간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음. 이들 부채의 대부분은 정부의 대차대조표 계정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부로부터 부채 상환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형태로 정부 부채에 가깝다고 보았음. 민간과 공공 영역의 구분이 모호하고, 결국 이들 기관이 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나서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였음.
- 보고서에서는 42개 국가들의 중국 대상 공공 부채 비율이 GDP의 10%를 넘고 있으며, 이들 금액은 세계 은행의 부채 보고 시스템(DRS)에 과소보고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출처 : Tempo)



2030년까지 4.7GW 규모의 신규 태양광 에너지 믹스 추가 계획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2030 중기 전력 수급계획(RUPTL)에서 태양광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여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였음. 추가 석탄 화력 발전 추진은 하지 않는 대신 기존에 약정되거나 건설중인 화력발전은 에너지 믹스 계획에 포함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에너지 관련 설비용량을 4.7GW 증설하기로 새 중기전력수급계획(RUPTL)로 의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로 하였음. 새로운 '녹색' 2021-2030 중기전력수급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비중을 51.6%까지 끌어올리기로 하였음. 이 계획에서는 같은 기간 이미 건설 중이거나 이미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14GW 규모의 신규 석탄 발전 계획 이외에는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 이번 중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설비용량은 40.6GW 수준임. 이번 수급계획에서 국영 전력회사 PLN의 신규 투자 여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립 전력 생산자(IPP)들의 참여를 대폭 허용하기로 하였음.
- 2030년까지 국가 전력 생산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5%까지 늘리기로 하였으며, 이것은 2020년말 기준 14%, 그리고 2020년대 중반까지 23%까지라는 계획을 반영하고 있음.
- 시간이 갈수록 태양광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는 23%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음. 여기에 화력발전소에서 바이오매스를 동반 이용하는 화력 발전을 구성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에너지광물부 장관은 방향을 밝혔음.
- 또한 인도네시아의 섬마다의 전력망 연결성을 더욱 높이고, 디젤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었음.



재정적자 GDP대비 3% 미만 유지 위해 700조 루피아 재정수입 필요 추산

INDEF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경제금융연구소는 2023년까지 제조업 부문 등 법인세에서 비중이 큰 업종이 개선되고, 민간 소비가 개선되어서 부가세가 개선되어야만 GDP대비 3%로 제한되어있는 재정적자 목표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GDP대비 3% 미만으로 재정 적자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수입 700조 루피아가 필요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경제금융 연구소는 추산하였음. 2023년까지 600~700조 루피아 수준의 재정수입을 추가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규정된 재정적자 제한 수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는 재정 수입이 목표대비 충분히 발생하지 않으면서 재정적자 목표 수준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으면서 관련된 세수수입 등이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GDP대비 3% 수준의 재정적자까지 회복하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조업, 무역업 등 세수 수입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하였음.
- 이와 함께, 민간 소비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소비를 통해서 부가가치세금이 추가적으로 걸려야 정부 수입이 개선되기 때문임.



인도네시아, 2022년 4월 탄소세 도입 추진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2022년 4월부터 탄소세를 시행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적용 산업 부문과 탄소세 수준을 강화하면서 탄소 배출 축소를 유도할 계획 이라고 밝혔음

- 재무장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지정된 한도를 넘어선 이산화탄소 상당물(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kg당 30루피아의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음. 일단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는 붙였음.
- 조화로운 세금 규제에 대한 법(The Law on Harmonizing Tax Regulation : UU HPP)에서 환경 보전을 위한 탄소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음. 탄소세는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는 29%의 탄소배출 축소를,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해 41%의 축소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 탄소세는 탄소 배출을 낮추면서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낮추고자 하는 그린 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관련 거래를 조정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임. 2021년 첫 단계에서는 탄소 거래제도와 관련된 것을 개발하고, 2022~2024 기간 동안에는 석탄 연료 발전소에 상한 부과 및 세금 부과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이후 2025년 부터는 탄소 거래 제도가 전면 도입되고, 탄소세의 적용 산업을 넓히고, 각 산업 부문마다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



인도네시아 금융업협회, 청년들의 핀테크 사용 시 주의 요청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금융업협회는 청년세대의 이용이 많은 핀테크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청 정식 등록업체인지와 업체의 취급 가능성 등을 따져보면서 안정적인 업체를 중심으로 거래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음

- 인도네시아 금융회사 협회(APPI)는 국민들, 특히 청년세대에게 핀테크 기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음. 핀테크 기술이 매우 편하고, 빠르고 쉽긴 하지만,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는 입장임.
- 핀테크 서비스가 편의성을 제공하긴 하지만, 모든 업체들이 금융감독청(OJK)에 등록되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서비스가 아무리 편하더라도 불법 핀테크의 이용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이 금융감독청에 이를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기관들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며 법적 구제를 받기도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용 전에 감독청 등록 기관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법적 안정성을 체크하는 것과 더불어서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이전에 해당 기업들의 대출 및 운영 능력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함. 모든 법적으로 인정된 핀테크 기업들의 데이터가 금융감독청 금융 정보 서비스 시스템(SLUK)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의 대출자들이 제대로 상환을 진행하면서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핀테크 기업들에서 이용한 이후에 지불이 막힐 경우에 개별 차주의 신용 정보가 감독청에 기록되면서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이 충분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지 자본 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함
- 2019년 감독청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31.26%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68.74%의 이용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필요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며,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답변하였음.



인니기업인협회, 비전통 시장으로의 접근 확대가 수출 증대 이끌었다고 평가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기업인 협회에서는 무역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을 통해 기존 무역상대국 이외의 비전통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수출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지원조치에 감사하는 한편으로 향후 사업을 위해 금융 지원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함

- 인도네시아 기업인협회(Apindo)는 여러 비전통 수출 대상국가의 발굴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성과가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음.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성공적으로 개척한 비전통 무역 상대국가들은 아프리카, 중앙 유럽, 남아메리카 등이라고 보았음.
- 협회장은 무역부가 CEPA, FTA, PTA 등을 체결하면서 비전통 국가들과 무역과 관련한 협력에 나선 것들이 인도네시아산 제품들이 여러 나라로 펼쳐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줬다고 평가하였음. 이에 더해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감소를 보인 것도 무역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경제 회복(PEN)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중소기업들의 생존 및 영업활동 지속을 도운 것도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에게 보다 우호적으로 금융 지원 정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희망하였음.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견뎌내기 위해서 보유 자본을 소진하였기 때문에 이후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임.